

‘전주세계소리축제’ 일정 확정

‘소리 #20’ 주제 9월 29일 개막... 20년 경험 토대로 ‘창의적 전통’ 제시

올해 성년을 맞은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일정과 주제가 확정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소리 #20’을 주제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주제를 ‘소리 #20’으로 정하고 지난 20년 동안 응집된 다양한 축제의 풍경, 축제가 우리에게 남긴 성과를 되짚어보고, 품격 있는 예술제로서의 도약을 알린다.

이번 주제는 축제의 근간을 이어온 ‘소리(춤, 노래, 목소리)’에 해시태그를 의미하는 ‘#’을 더해 소리로 이어온 20년의 세월을 20개의 장면(공간)으로 집중해 보여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날 공개한 메인 포스터는 축제 20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보여줬던 감동의 장면들이 소리축제라는 길을 통해 희망과 연대의 하모니로 승화되는 느낌을 한결 ‘목소리’와 숫자 ‘20’을 통해 형상화했다.

또 독창성과 창의력, 치유,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울트라 바이올렛, 아쿠아미린 색상을 넣어 조화에도 의미를 줬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화제를 모은 국내외 연주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예술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과 경계를 뛰어넘는 예술의 동시대성을 고찰할 계획이다.

특히 소리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과 짧은 판소리 다섯 바탕, 소리프론티어 등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 판소리에 대한 재해석을 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소리프론티어는 지난 10년간 ‘한국형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소리 #20을 주제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제공>

월드뮤직’을 지향하는 젊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 경쟁프로그램에서 ‘판소리’를 소재로 한 장르와 해석의 확장을 다루는 등 새롭게 탈바꿈한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전북의 응집된 문화 예술적 배경과 가치를 안고 탄생한 축제인 만큼 전통을 현대적으로 운색하고 변

화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문화에 화두를 던지고 시대의 예술을 자극하는 매개로써 존재해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의 역사를 축제의 틀 속에 가두지 않고, 시대와 예술에 물음과 성찰을 던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제91회 전국춘향선발대회 개최

6명 선발...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남원 광한투원 춘향각에서는 지난 19일 남원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대표 전통미인 선발대회인 제91회 전국춘향선발대회가 진행되며 6명의 춘향을 선발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멀티프라자광장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치러진 제91회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 진(眞)에는 김민설 양(22, 서울시, 서울예대 재학)이 대한민국 최고미인으로 등극했다.

선에는 김민지 양(22, 부산시, 오슬랜드 대학교 재학), 미에 이사라 양(24, 서울시, 성신여대 재학), 정에 이한나 양(24, 서울시, 성신여대 휴학), 속에 윤진주 양(24, 경기도 화성시, 수원과학대 졸업), 현에 김은지 양(22, 경기도 수원시, 가천대 재학)이 각각 뽑혔다. 또한 24명의 춘향 후보들의 투표로 주어

지는 우정상에는 오승현 양(24, 경기도 성남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에게 돌아갔다.

춘향 진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선에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미에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 정·속·현에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전달됐으며, 우정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올 춘향선발대회는 서류와 면접사를 통해 최종 24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으며, 춘향제전위원회는 지난달 24일·25일 이틀에 걸쳐 1·2차 예선을 진행하고, 11일부터 18일까지 철저한 방역이래 합숙을 실시하면서 남원향교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등 춘향의 정절과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원시는 20일 이번 제91회 미스 춘향 진을 비롯한 6명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근대 학교생활 담은 자료 수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 6월 16일까지 일제강점기~1970년대 배경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역사 전문 박물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시민과 기관, 단체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근대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진 등 자료를 수집한다.

이번 자료수집 대상은 ‘일제강점기~1970년대’의 군산 및 근대기 학교를 배경으로 한 사진, 수업과 교내 행사 등 학교생활 관련 사진, 졸업 앨범 등으로, 사진과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등이다.

시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히면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기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여부 등을 검토 후 기증 절차에 따라 기증받아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 자료 이외에도 근대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타 자료들도 함께 수집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기증한 졸업사진 등 학교 생활사진 자료는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에 상설전시자료로 전시되어 있고, 지난 해 체만식 문학관 기획전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시간’, ‘공복 이후 교과서의 불’ 전시에 근대 교과서, 생활 통신표, 수료증 등과 함께 전시하는 등 시민의 기증품을 소중히 보존 활용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학교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이 귀중한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수집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최명희 콩트 함께 읽기’ 22일 행사

최명희문학관에서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명희 콩트 함께 읽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김근혜·박서진·전은희 동화작가를 초청해 마당에 전시된 최명희의 콩트 ‘원산동물원’과 ‘네가 기다림을 바라지만 않는다면’ 두 편을 동화작가들과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며, 작품을 활용해 ▲국어사전을 펼쳐라 ▲삽화 색칠하기 ▲역할 나뉘 읽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사전을 펼쳐라’는 작품 속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작품의 의미를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이다. 국어사전을 시집처럼 읽었다는 작가 최명희를 떠올리는 행사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풍성함과 세밀한 아름다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감상 나눔과 체험에 활발하게 참여한 관객에게 전주한옥마을 공예작가들의 수공예품과 동화작가들의 소장 도서를 선물한다. /정은성 기자

춘향 진 김민설 양 “남원·춘향 알리고 싶어”

제91회 미스 춘향진에 선발된 김민설 양은 “24명의 후보자들이 너무 인물도 훌륭하고 뛰어난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진으로 뽑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설 양은 “대학교 연기전공에 재학 중인 만큼, 자신의 전공을 살려 향후 춘향의 이야기를 웹드라마로 선보여 남원과 춘향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며, “가능하다면 연기자로 출연해 남원과 춘향을 기반으로 한 시대를 불꽃

처럼 살다간 춘향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춘향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본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김양은 2021년에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춘향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두번째 질문에서 “춘향하면,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가 아니냐”면서 “5G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춘향이의 인내심과 정신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덕목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시상금 받은 것으로 이번 대회출전에 아낌없이 지원해준 부모님께 귀한 음식을 꼭 대접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남원과 춘향을 알리는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상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